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지성소)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길이요, (지성소)휘장은 곧 저의 (찢겨진)육체니라”고 재천명하고 있다.

그가 찢으신 자신의 육체로 인하여 위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신) 아래로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고(십자가의 수직적 나무가 상상하는대로,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과 절대 더러운 죄인 사이에 악한 담이 헐어졌고), 그가 흘리신 보혈과(히 9:14, 22)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불경건과 불의의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엡 2:1-3; 롬1:18) 완전히 씻기시사(=중생; 요 13:10; 고전6:11; 엡5:26, 27; 히 10:22; 딛 3:5), 본질상 거룩한자를 만드시오(살후 2:13; 벧전 1:2), 계속 죄성—죄습관—죄행위—죄오염의 사중적 더러움에서 씻겨지고, 계속 더 모은 일에 거룩해지고, (행 22:16; 계7:14; 22:14), 하늘지성소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히 4:16), 새롭고 산길을 영원히 찢어진 지성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다.

결론 : 거룩이해의 경책적 적용과 그 변화의 열매

거룩과 성결 법전인 레위기서를 통하여 우리는 얼마나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목소리와 심장을 듣고 느끼는가?

레 11:44로 부터 반복되는(19:2; 20:7, 26; 21:8, 15; 22:9, 16, 32) 거룩에의 함성과 벧전 1:14-17에 그 배아리를 얼마나 나의 실생활에 실감하고 있는가? 거룩의 원소적 삼대요소가 “광채” “고상” “청결”임을 이제 새롭게 배우면서, “이전에” 어둡고, 천하고, 더러웠던 삶에서 “그러나 이제는” 얼마나 이 악하고,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해같이 빛나며”, “위에것만 생각하고, 찾고, 사랑하며”,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는” 확실한 거룩에의 이해와 그에 따른 변화의 열매가 있는가?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의 본문으로 롬 3:21; 엡5:8; 골 3:7, 8; 딛 3:3-7; 벧전 2:10을 참조하라). 우리의 남은 생애에 “광채”와 “고상”과 “청결”의 관점에서 보다 더 분명한 거룩을 “모든 행실에서”(벧전 1:15) 시위할 수 있도록 이 줄고가 경책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살전 4:3) 아멘!

번역

청교도, 성(性), 그리고 쾌락*

(THE PURITANS,SEX,AND PLEASURE)

저자 : DANIEL DORIANI**

번역 : 강 필 중***

청교도의 율법주의, 명량하지 못함(Joylessness)과 금욕주의적 자본주의 그리고 양전한 체하는 태도 등에 대한 비방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어떤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학자적인 태도(scholars' attention)에 접근하기 시작함으로써 그들의 용기와 활동력을 보여 주었다.

과거의 비난들은 새로운 작가들을 통해 여전히 흘러 나오고 있다. Lyle Koehler는 청교도들이 잘 차려진 음식, 오락등을 세속적인 세계의 “장난감들(toys)”이라고 판단해 버리며 “감각적인 쾌락(pleasure)에 대해 도덕적인 혐오”를 느낀다고 비난한다.¹⁾ Lawrence Stone은 영국의 청교도들과 구교도들이 “각각 그 자체와 육체의 욕망은 악(evil)”이라고 믿는데 대해 비난했다. 그는 기독교와 특별히 도덕적인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육체의 쾌락은 특히 죄스러운 것이었다”²⁾ 라고 주장한다.

1930년대 이후 기독교와 비기독교 학자들은 이와같은 비난에서 청교도들을 구해내느라 수고해 왔다. 그들은 청교도가 혼란되어지고, 규칙을 엄수하기는 하지만 율법주의적인 것은 아니라 주장한다. 그들은 음식, 음료 그리고 오락들을 어느 정도로 즐기는 입장이며 율법주의는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의 방어자들은 청교도들은 섹스를 포함한 부부간의 사랑에 있

*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53TH, 1991, 125-143에서 완역한 것임

** Geneva College 성경신학 조교수

*** 고려신학 대학원 3년

¹⁾ Lyle Koehler, *A Search for power* (Urbana, I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0) 10.

²⁾ Lawrence Stone, *The Family, Sex & Marriage in England, 1500-1800* (New York: Harper & Row, 1977) 499, 523.

어서는 건전한 태도를 가졌으며, 그렇지 않은채 하던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과 혼돈해서는 안된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몇몇 기독교의 연구가들과 작가들은 성인전(聖人傳, hagiography)의 어떤 모호한 부분을 밝혀야하는 것은 간과해 버렸다. 그들은 청교도 비난자들이 전적으로 나쁘다고 주장한다. 1933년에 이미 Percy Scholes는 말하기를 쾌락을 반대하는 청교도의 태도는 안식일 엄수사상에서 나왔으며, 이는 King James의 [Book of Sports]에 대한 저항이기도 한데, 여기서 사실상 영국인들은 안식일에 게임과 오락을 즐길 것을 요구했다고 선언했다. 청교도 사회의 습관에 대해 연구한 Scholes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짓는다. “나는 청교도들이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쾌락에 반대한 증거를 찾는다는 실�했다”.³⁾

Ronald Frye는 고전적인 청교도에서는 ‘더 없는 행복의 왕관’인 결혼의 성적 생활에 대한 지식을 가르쳤으며, 영국에서는 청교도 목사들도 보다 더 자유로운 부부간의 애정의 태도를 가르칠 정도였다고 기록했다.⁴⁾ 더 최근에 Leland Ryken은 청교도들은 성에 대한 중세의 태도를 거부한다고 생각해 왔다. 청교도의 관점에서 볼 때 결혼한 사람들의 성욕은 합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원기왕성함(exuberant)을 의미해 왔다. “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복락과 희락을 누리도록 만들어주신 좋은 것이었다. 그리고 청교도들은 그에 대해 금욕적이지 않았다.”라고 Ryken은 주장한다.⁵⁾

독자들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상반되는 의견에서 어느 주장을 따라야 하나? 누가 옳은가? 아니면 다른 곳에 궁극적인 진실이 있는가? 본 논고는 영국에서 초기 100년동안 청교도의 성과 쾌락에 대한 가르침을 조사하던 중에 생긴 몇 가지 의문들에 대해 입증할 만한 해답을 얻고자 시도할 것이다.⁶⁾ 이는 그 연구가들의 기준과 의도등을 근거하여 청교도의 교훈을 평가하며, 결혼에 있어 성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선언함으로써 그들의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³⁾ Percy Scholes, *The Puritans & Music*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34) 304-12.

⁴⁾ Ronald Frye, “The Teachings of Classical Puritanism on Conjugal Love,” *Studies in the Renaissance* 2 (1955) 149, 153-55.

⁵⁾ Leland Ryken, *Worldly Saints* (Grand Rapids: Zondervan, 1986) 43-45.

⁶⁾ This article uses sources to represent the Puritan position on the basis of the definition articulated by Patrick Collinson in *The Elizabethan Puritan Moveme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7) 13,22-27, and Peter Lake in *Moderate Puritans and the Elizabethan Chur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1-12, 279-92. Both deny that the Puritans should be defined as a party

1. 부부성교에 있어 청교도 교훈의 배경(The Context for Puritan Teachings on Marital Relations)

육체적 사랑에 대한 청교도의 가르침을 가장 잘 이해하려면 로마 교회(Roman Church)의 가르침과 비교해 보면 된다.⁷⁾ 금욕주의는 초기의 교회 생활 이후 역사속에서 오래동안 묻혀 있었다.

2세기부터 결혼에 있어 순결이 최상의 것으로 부각되었다. 재혼은 죄였으며, 세번째 결혼은 불신앙의 표시였다. 초기에 어떤 기독교 청년들은 성적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사막을 택했고, 심지어 여자의 모습이 보이기만 해도 멀리 떨어져서 자신을 지켰다. 몇몇은 여자와 함께 자면서 자신의 결백함을 보여주고, 유혹으로 부터 강해지려고 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너의 손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잘라 버리라”하신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도 역시 그렇게 했다. 성직자의 결혼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고, 결국은 금지령이 시행되었다. 교부들은 마니교도와 그노시스교도 그리고 이원론적 다양성을 가진 그리스인에게는 결혼과 성욕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결집된 이해와 성경 읽기등에서 영향받았음을 감안하여 허락하였다. 대개 교부들은 성교에 대해서 감정적인 거부함과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성적 열정과 쾌락과 특히 강렬하고 통제하기 힘든 성적 자극을 두려워했다. 성욕의 수성(獸性, animal-like aspect)은 그들을 불쾌하게 했으며, 이성적인 통제가 결핍되어 그런 성적 행동을 한다고 비난했다. 이 모든 일들은 수치스럽고, 더러운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⁸⁾

여기서 몇 가지의 결론이 다르게 되었다. Augustine, Tertullian, Jerome 그리고 몇 사람은 결혼을 했더라도, 심지어 남편과 아내가 자식을 낳기위한 방편이라 할지라도 색욕(concupiscence)을 밝힌다면, 이는 적어도

opposed to the Anglicans, They were, instead, fervent believers, “the hotter sort of Protestant,” men and women who actively strove for godliness and were personally convinced of the truths of Protestant Christianity. This article confines itself to English Puritans before the civil war, specifically from Thomas Becon’s work on matrimony published in 1542 to Daniel Roger’, published in 1642.

⁷⁾ For a thorough, balanced, and meticulously documented overview of Roman Catholic attitudes toward sex from the Patristic age to the Council of Trent, see Derrick S. Bailey, *Sexual Relation in Christian Thought*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9) 19-166, 179-80. The following five paragraphs depend somewhat on pp. 19-102 of his book.

⁸⁾ See e.g. Augustine, *The City of God* (New York: Random House, 1950) 14, 16-18, 23, 26.

‘소죄다(小罪, venial sin)’라는 결론을 지었다.⁹⁾ 많은 신학자들은 결혼의 범위안에서도 성교(coitus)를 제한하였으며 거의 순결을 찬양할 정도였다.

반면, 그들은 하나님이 결혼과 인간의 출산 방법을 포함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고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므로 어떤 정통신학자도 성욕과 결혼생활을 비난할 자격은 없었다. 그러나 교회는 결혼의 선함을 진지하게 유지하였다. 그래서 Augustine은 아담과 이브의 타락이전에도 결혼은 있었으며 그들이 죄없었을 때에도 성적으로 생식할 수 있었다는 것을 더욱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아기를 낳는 것은… 죄의 형벌이 아니라, 결혼이 가져다 주는 기쁨이었다.”¹⁰⁾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주요 주제보다는 용인된 것이다. 교부들은 타락 이후 인간의 욕망은 모든 성적인 행위로 오염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성적인 행위는 가능한 한, 심지어 결혼이란 범위내에서도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¹⁾ 많은 마찰이 있게되고 결국 그들은 모든 성직자들에게 순결에 대한 “협약”을 요청했다.

중세의 카톨릭 신학자들은 초기 교회의 견해를 따랐다. 그들의 대표적인 인물로 Thomas Aquinas를 들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결혼이란 범위내의 성적인 행위 조차도 비난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Aquinas는 성적인 행위를 지나치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했더라도 그것은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Aquinas는 결혼한 사람의 행위는 항상 죄스러운 것이 아님을 인정했지만 논쟁을 결론 짓기 전에 그는 다음과 같이 확신했다.

- (1) 성행위 (the marriage act)는 “항상 색욕과 연결”되므로 “항상 수치스러운” 것이다.
- (2) 그것은 항상 성행위의 쾌락을 능가한다. 이것은 이성을 잃게하고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다.
- (3) 하나님은 결국 쾌락을 금하셨다.
- (4) 성행위는 그 자체가 악이다. 비록 그것이 죄가 아닐지라도 형벌이나 육욕등과 “단지”연결만 되어 있다면 그것은 악이다.¹²⁾

Aquinas는 고전 7: 3, 28과 딤후 5: 14과 같은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행위”가 “전반적으로 불법”인 것은 아님을 시인했다. 만약, 아기를 낳고 배우자에게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일 외의 것이라면 위법이다. “배우자에 대한

⁹⁾ Bailey, *Sexual Relation*, 44-58.

¹⁰⁾ Augustine, *City of God* 14.21.

¹¹⁾ Some praised marriages in which husband and wife agreed to remain virgins permanently.

¹²⁾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ca*(New York: Benziger Brothers, 1992) Q41, A3; Q49, A4.

의무를 다하는 것이든, 종교적인 것이든지 간에 성행위가 미덕이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아기를 낳을 지도 모르는 것이며, 그것은 가치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 동기가 욕망이었다면… 그것은 소죄(小罪)이다.”¹³⁾ 만약 그 동기가 하나님께 대한(자녀) 또는 사람(배우자)에 대한 “의무”라면 그 성행위는 가치있는 일이다. 만약 그 동기가 욕망이라면—심지어 자신의 아내라 하더라도—그것은 죄스러운 것이다.

Augustine과 Aquinas의 관점은 종교개혁(Reformation)까지 정설로 남아있고, 후에는 여러 이론들 가운데서도 개혁주의의 가르침과 경쟁하게 되었다. 그 한 예로, 16C 스페인의 카톨릭 인본주의자인 Ludovico Vives는 1557년 런던에서 [Instruction of a Christian Woman]을 발간했다. 여기서 Vives는 “우리 주님께서 순결함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없다”고 말하면서 순결은 여자의 최상의 미덕이라 주장하고 처녀성과 순결을 극찬했다. Vives는 이러한 미덕을 과대 평가하여 결혼안에서도 그러하기를 노래했다. 그는 결론짓기로, “육체의 쾌감은 무가치하다. 이것은 우리 본성의 표현……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그것을 경멸한다…… 그 보다 더 영혼의 우월함을 추구해야한다…… 그는 이 쾌감을 짐승같이 천한 것이라고 기피한다.”¹⁴⁾

2. 부부성교에 대한 초기 청교도의 교훈 (Early Puritan Teachings on Relations)

모든 개혁주의자들처럼 청교도들은 여기에 열거한 것과 같은 로마 카톨릭의 여러 원칙들을 거부했다. 그들은 결혼은 본질적으로 순결만큼이나 좋은 것임을 확신했고 최상의 것임을 암시하기도 했다. 그들은 성직자의 독신 생활을 반대했다. 그들은 카톨릭 신자들의 생각 즉 성직자와 수녀들이 자기들의 간음행위를 숨기기 위해 유야까지 살해한다는 생각에 대해 반대했다.¹⁵⁾ 개혁주의 사상가들은 결혼생활은 위와같은 죄를 방지할 수도 있고 거룩한 씨를 생산할 수도 있으므로 좋은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 선언도 그들에게는 성과 쾌락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불러 일으키지 못했다. 초기의 신학자들과 중세의 교회는 그 생각에 반대했다.¹⁶⁾

¹³⁾Ibid., Q41, A3-4.

¹⁴⁾Ludovico(or Juan) Vives, *The Instruction of a Christian Woman*(London, 1557) D4, H4, Aa3.

¹⁵⁾Thomas Becon, *The Worckes of Thomas Becon*(London: J.Day, 1563) 585r. Becon inveighed against clerical celibacy for over eighty pages(575v-616r).

¹⁶⁾See Ed and Gaye Wheat, *Intended for Pleasure: New Approaches to Sexual*

청교도들은 대륙의 개혁주의 관점인 신앙심이 좋은 상태에서 결혼한 부부는 순결하며, 그 결혼 생활의 순결한 사랑은 “두번째 성질의 순결”이다라는 생각을 최초로 받아 들였다.¹⁷⁾ 16C 중엽의 작가인 Thomas Becon은 말하기를 “결혼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영예로운 것이다. 그 성관계는 결백하다……결혼생활…… 또한 하나님앞에서 순수하고 깨끗하다”¹⁸⁾라고 했다. Becon은 또한 성직자에 대한 로마 카톨릭의 논쟁에 대해 반박하였다. 교회는 이성적인 판단력을 가졌고, 성례는 거룩하고 순수하므로, 자신의 아내를 머리속에 떠올리는 남자(성직자)와 같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손댈 수 없는 것이었다.¹⁹⁾ 그러므로 성직자는 결혼해서는 안되었다. Becon이 로마인의 가르침을 비판하고 결혼의 성관계, 순결성과 영예등을 주장하였으나, 결혼안에서 성행위가 순수하다는 그의 주장을 발전시키지는 못했다.

Robert Cleaver와 William Perkins로 대표되는 16C 후반 작가들이 등장하는 다음 세대는 성행위의 도덕적인 면에 대한 제의가 시작되었다. 결혼이라는 범주내에서 성의 순결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고했지만, 그들은 부부간의 성을 억제하는 카톨릭의 태도에 부분적으로 돌아갈 것을 시도했다. Cleaver는 수욕(獸欲)적인 사람과 성적 만족에 대한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 결혼전에 일정한 약혼기간을 둘 것을 주장했다. 그는 부부가 “기도와 절제가 없이” 그들의 특권을 이용한다면 그들의 결혼은 불결해 지고 더럽혀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²⁰⁾ Perkins는 결혼의 필수적인 의무를 “마땅히 베풀어야 할 호의(due benevolence)”라고 묘사하면서, 이는 “독자적이고 전적인 애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부연한다. 그러나 그는 결혼의 성관계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Perkins는 결혼의 성관계가 대수롭지는 않은 것이지만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이루는 일이므로 정결하게 사용한다면 이 일은 거룩하고 깨끗한 행위가 된다고 부연했다. “정결한 사용(holy usage)”이란 다음의 세가지를 내포하는데, 첫째 절제(moderation)이다. “결혼을 했더라도, 육욕을 능가

Intimacy in Christian Marriage(Old Tappan, NJ: Revell, 1977) 19-23 passim. The title says enough.

¹⁷⁾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LCC: Philadelphia: Westminster, 1960) 4.12-28 and 3.19.7-11.

¹⁸⁾Thomas Becon, *The Catechism of Thomas Becon with Other Pieces*(The Parker Society Publications 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44) 103-4. Throughout this article spelling has been modernized in quotations but not in titles.

¹⁹⁾Becon, *Worckes*, 609v.

²⁰⁾Robert Cleaver, *A Godley Forme of Household Government*(London: T. Creede, 1603) 140, 158, 182.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간통하는 것이나 흡사하다” 둘째, 금식하는 동안이나 월경기간 같은 때에는 가끔 금욕(occasional abstinence)하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께 축복받은 씨를 주심으로 그들의 행위를 축복하실 것에 대해 기도(祈禱)하는 것이다.²¹⁾

Cleaver와 Perkins의 제안과 견해는 17C 초반으로 옮겨 갔다. 그 기간에 다수의 청교도 대변인들은 가정에 관한 장서나 설교집을 발간했다. 그들의 사고는 다방면에서 성숙되고 일치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부부성교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분투했다. 그들은 결혼과 결혼의 성교는 순수하다는 Becon의 주장을 따랐다. 또한 그들은 부부간의 성관계는 선한 목적과 결과 즉 간음을 방지하고 경건한 씨(godly seed)를 탄생시킨다는 것을 믿었다. 그러나 그들은 부부관계(marital relations)가 그들 자신들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믿었을까?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가 즐기고, 기뻐하도록 성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했을까? 청교도들은 부정적이 아니면 긍정적인 대답을 했을 것인데, 다음 장에서는 성욕이 선하다는 주장을 무효로 해버릴 수 있는 사실상의 성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보여주고자 한다.

3. 부부간의 애정과 성욕에 대한 청교도의 평가 (Puritan Appreciation of Marital Love and Sexuality)

여러 청교도 작가들은 종교개혁이 영국의 경건한 자들로 하여금 애정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취하게 했다고 한다. 평생을 통해 깊이 존경을 받아온 John Dod는 17C 초기에 애정에 대해서 완곡한 찬양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성실한 인물로 대표된다. Dod는 우리가 욕정을 이기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서는 결혼생활(matrimony)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결혼한 사람의 애정문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했다. 그러나 단지 결혼만으로는 욕정을 이기기는 못할 것이다.

모든 결혼한 사람은 그의 배우자에게 순수하고 열렬한 사랑을 바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만약 결혼한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으로부터 열렬하고 순수한 사랑을 받았다면, 이것은 탈없이 지나갈 수는 있을 것이다……²²⁾ 육체와 같이 굴복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순수한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이다.²²⁾

그래서 Dod는 열렬하고 감각적인 사랑은 결혼한 사람이 간음하지 못하도록

²¹⁾William Perkins, *The Workes of William Perkins*(3vols; Cambridge: J. Legatt and Cantrell Legge, 1616-18) 3.689.

²²⁾John Dod, *A Plaine and Familiar Exposition of the Ten Commandments*(London: F. Kingston, 1612) 287, 290-91.

록 도와준다고 제안했다. 그는 “경건한 기쁨(holy delights)”을 같이하는 자들은 “신앙심 없는 쾌락(ungoldly pleasure)”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²³⁾ Dod의 비평에서 긍정적인 면은 죄를 방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부부간의 애정을 찬양했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4권의 인기있는 결혼 설교집²⁴⁾을 낸 저자 Thomas Gataker가 보다 더 명백하다 할 수 있다. 사랑의 임무 가운데 남자는 그의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Gataker가 말한 임무란 아내에게 육체적인 쾌감을 주는 것이었다. 그는 잠5:15, 18-19을 인용하면서 남편들에게 ‘들으라’고 말한다.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네 샘으로 복 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시습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 하라. 마치 성령께 다른 사람들도 사랑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결혼 한 사람들에게 사적인 희락이나 행동을 허락하신 것 같다. 아마 이삭이 리브가에게 한 행동도 그런 일이었을 것이다.²⁵⁾

Gataker는 인간의 행복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기독교를 묘사하는 것은 마력을 가진 병법이라 믿었다. 청교도인 Gataker는 말하기를,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묘사는 사탄의 환영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한번 헌신했다면 그들은 모든 기쁨과 쾌락으로부터 영원한 이별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즐거운 날들은 사라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그러한 기쁨, 쾌락은 없다. 한숨, 신음과 굶주림과 기도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도, 그의 집에도 쾌감이 있고, 결혼을 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축제를 베풀고, 그리스도의 얼굴이 많이 나타나며 거기에는 기쁨이 있다.²⁶⁾

여러 청교도들은 남편과 아내가 애정을 나눌 때를 묘사함에 있어 결혼생활의 육체적인 면을 넘어서 표현했다. Daniel Rogers는 하나님의 손은 어떤 남자와 여자사이에서 “마음속에 숨겨진 감응(secret sympathy of hearts)”을 자아내신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애정은 기독교인이 공유하는 정신적 사랑보다는 나은 것이며, 심지어 야수적인 경험까지도 하게

²³⁾Ibid., 291.

²⁴⁾The length of two sermons indicates that he inserted additional material for publication.

²⁵⁾Thomas Gataker, *Certain Sermons*(2 vols.; London: J. Haviland, 1635) 2.206.

²⁶⁾Thomas Gataker and William Bradshaw, *Two Marriage Sermons*(London: W. Jones, 1620) 14.

하는 육체적 매력보다 나은 것이다. 그것은 “두 사람의 달콤한 혼합, 의무이며 본성이다(religion and nature)”이다.²⁷⁾ Rogers는 결혼생활의 감정적이고, 촉각적인 면을 자아내면서 헌신적인 아내의 모습을 묘사했다. “그녀는 그가 있음으로 기뻐하고, 없음으로 슬퍼하며 그의 품안에서 편히 쉬고, 잠들며, 그가 일어나는 것이 자명종시계가 된다. 그를 뒤따르며, 그와 헤어질 때 그에게 매달리며,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²⁸⁾

Becon과 함께 William Gouge는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최대한으로 진척시켰다. Gouge의 부부관계에 대한 긴 토론의 배경에는 간통이란 가증스러운 죄에 대한 방지가 있었다.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는 그들의 마음, 눈, 귀, 혀, 입, 손, 발, 동료, 음식, 의복 그리고 시간에 있어서도 잘못 사용하여 죄로 이끌리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한다. Gouge는 결혼 생활에 대해 보다 더 방대하게 말하기를 계속한다.

결혼한 사람에게 간통에 대한 가장 좋은 구제책 중의 하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상대방을 즐거워하고, 그들 사이에 순수하고 열렬한 사랑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마땅한 호의(due benevolence)’를 베푸는데 이는 말씀이 인정하고 보장하신 것이다. 이 ‘마땅히 베풀어야 할 호의’는 결혼의 궁극적 목적을 유지시키고, 금욕하지 않고 순결을 보존하는 방법이며, 합법적인 생명을 탄생시켜 세상을 확장시키고, 부부간의 애정을 더욱 확고히 맺어주는 결혼생활에 있어 가장 필요하고 필수적인 행위중의 하나다.

이 ‘호의(benevolence)’란 선한 의지, 기쁨으로 기꺼이, 쾌히, 즐겁게 행하여져야 함으로 이렇게 부르며, ‘마땅한(due)’이란 빛을 지고—즉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빛을 지고—있기 때문에 일컫는 말이다.²⁹⁾

우리는 긴 문장을 인용했는데 이 단락을 속에는 적어도 청교도에 대한 세 가지 돌파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로, Gouge는 마침내 “마땅한 호의”가 결혼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독립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했다. 그는 “마땅한 호의”는 단지 죄를 방지하고 합법적인 자식을 낳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혼생활에 있어서는 불가결한 행위(essential act)”다 라고 말함으로써 Aquinas와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Luther와 그 동료들을 제압하였다. 그래서 Gouge는 후에 Augustine, Ambrose와도 맞서 논할 때에도 한결같았다. 임신이 그 행위의 유일한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가 임신해 있음을 어떤 사람은 “알고”있을지도 모른다.³⁰⁾

둘째로, Gouge는 약간은 망설이면서도 성관계의 새로운 목적을 아내와

²⁷⁾Daniel Rogers, *Matrimonial Honour*(London: T. Harper, 1642) 146-50.

²⁸⁾Ibid., 188-89.

²⁹⁾William Gouge, *Of Domesticall Duties*(London: J. Haviland, 1622) 221-22.

³⁰⁾Ibid., 224.

남편사이의 애정의 증가(increase)라고 소개했다(성적 관계가 “애정을 연결”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생각은 고전적 카톨릭교에서는 이질적이었고 몇몇의 초기 개혁주의자들에게는 잘 잠재되었다). 세제, 비록 Gouge가 성관계의 책임을 맡았지만, 그는 이 책임이란 부부 서로를 위한 즐거운 책임이라 믿었다. Gouge는 잠5:19을 인용하면서 자유스런 권한을 덧붙인다. “남자는 항상 그의 아내를 만족해 해야하며, 그녀의 사랑을 황홀해 해야한다.”³¹⁾

그 이후 청교도들은 보다 긍정적으로 교회에 돌아왔고, 부부간의 사랑에 대한 생각도 보다 더 성경적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한다면 “시작했다(began)”란 단어를 강조해야 한다. 청교도의 사고가 회복되는 반면, 성경적 사고의 양상을 부정하고, 가장 진보적인 작가들도 그들의 자유화된 소견을 제한하였다. 그래서 Gouge는 청중들에게 잠5:18-19은 비유이며 과장된 것임을 기억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열렬한 애정을 가진 기독교인도 기독교의 정수와 예의의 영역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육욕을 진정시키기 보다는 자극하기를 요구하고, 심지어는 금식할 때, 아플 때 또는 월경기간에도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배우자를 비난했다.³²⁾ Gataker와 마찬가지로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육체적인 기쁨을 주도록 권하는 것은 성적 자극에 대한 뜻깊은 유보이다. 여러 저자들의 성에 관한 칭찬과 유보는 우리를 놀라게 한다. 따라서 오랜 카톨릭의 사고와 동화되지 못한 성경적 사고로 논쟁하였다.

4. 청교도의 부부간의 사랑과 성욕에 대한 제한(制限) (Puritan Restrictions of Marital Love and Sexuality)

청교도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성욕을 창조하셨고, 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를 낳으며, 부부간의 성관계는 순결하다는 것을 확신했다. 우리는 그들이 부부간의 사랑을 육체적, 낭만적인 면에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성욕의 순결과 선을 주장하는 등의 많은 경고와 제한을 했다.

결혼이란 범주 안의 성적인 행동에 대한 청교도의 세가지 제한을 보자. 첫째, 그들은 추하고, 무절제하며 동물같은 성행위에 대해 경고한다. John Robinson은 결혼이 간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하지만 오용한다면 그 잇점을 잃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³¹⁾Ibid., 217.

³²⁾Ibid., 360-61, 223.

어떤 사람이 과식을 하거나 과음을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지나친 육욕을 행할지도 모르는데 이 둘은 다 과도한 애정이요 행위이다. 부부의 동침은 고귀해야하며, 더럽혀져서는 안된다. 히13:4에서와 같이 하나님앞에서 음행, 간음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된다.³³⁾

Robert Bolton은 결혼한 부부는 다음과 같이 순결과 그들의 관계를 보존해야 할 책임을 가진다고 말했다.

그것은 결코 감각에 치우친다거나, 음탕한 대화, 어리석은 희롱, 그리고 다른 어떤 육체의 자극등으로 더럽혀져서는 안된다. 결혼은 감정을 자극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어하는 것이다. 결혼 안에서라도 절제를 못하고 무절제하며 과욕을 부리는 것은 고대나 근대에도 하나님앞에서 간통과 마찬가지로 간주되었다.

그는 술을 지나치게 마셔서 술고래가 되고, 음식을 지나치게 좋아해서 폭식가가 되듯이, 부부의 동침을 잘못 이용하면 부정해 진다고 말한 Augustine을 포함하는 여러 저자들을 들어 인용했다. Bolton은 ‘쾌락(pleasure)’을 전적으로 부정했지만 “결혼의 쾌감에는 뭔가 엄격하고 진지한 기쁨이 섞여 있음이 틀림없다. 그 즐거움은 아주 양심적이고 신중하기까지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했다.³⁴⁾

지난 1장에서 Gataker는 부부간의 성욕에 관해 Aquinas와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그는 “결혼의 결합(nuptial conjunction)”에 대한 인간의 성향 그 자체가 단순히 악인 것은 결코 아님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애정은 부정하고 불결한 것들로 섞여서 더럽혀질 뿐만 아니라 쓰라린 고통까지도 느끼게 할 만큼 격렬하고 맹렬하다고 부언했다.³⁵⁾

또한 William Whately도 지나친 열정을 부정하고 ‘쾌감(pleasure)’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혼한 부부는 그들의 쾌감을 위해서 욕망을 일으켜서는 안되며 욕정이 일어나고자 하면 가라앉혀야 한다. 그들이 냉랭해 있을 때 욕정을 불태우기 위한 말이 나뉘기를 해서도 결코 안된다.....³⁶⁾

그는 경고하기를, 과욕은 간음을 불러일으키고 열정을 불태우며 육체를

³³⁾John Robinson, *The Works of Robinson, the Pilgrim Father*(London: John Snow, 1851) 3. 241-42.

³⁴⁾Robert Bolton, *Some Generall Directions for a Comfortable Walking With God*(London: Legatt, 1634) 242-44.

³⁵⁾Gataker, *Sermons* 2.165.

³⁶⁾William Whately, *Directions for Married Persons*(ed. John Wesley; Christian Library; London: T. Cordeux, 1821) 12,265. This edition is Wesley's abridgement of *A Bride Bush: Or a Direction for Married Persons*(2d expanded ed.; London: B. Alsop, 1623).

쇠하게 하여 생명을 단축시킨다고 했다. 그리고 인간을 무능하게 하며 다산을 방해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질서속에서 쾌락을 절제할 줄 아는 세심함이 요구된다.³⁷⁾

청교도들은 열정적인 욕정과 추잡한 행위는 인간을 짐승의 수준으로 하락시킨다고 말했다. Nicholas Byfield는 “지나친 육욕”을 “짐승의 성욕”에 연결시켰다. Rogers는 “하고싶은 대로 하는 것이 곧 법(their will is their law)”인 “잔인한 짐승들”과 같은 인간에 대해 욕을 퍼부었다.³⁸⁾

둘째로, 청교도 설교자들은 성교의 시기에 대해서도 제한을 했다. 야만스런 행동에 대한 두려움은 남자가 동물처럼 성교하지 않을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약혼과 결혼 사이의 한 시기를 들것을 주장했다. 청교도들은 결혼한 부부의 성행위의 시기에 대해서도 제한을 했다. 그들은 월경기간에는 성교를 제지했던 레위인들의 행위를 고수할 것을 요구했다.³⁹⁾ 청교도들은 또한 성관계의 횡수에 대해서도 충고를 했다. Whately는 성관계는 “삼가하여 결혼한 부부가 서로 필요를 느낄 때에만” 행해져야 한다고 말했다.⁴⁰⁾

Daniel Rogers는 몇 그리스 철학자들이 세뇌놓은 성관계의 횡수에 대한 지침을 관찰하고 다음을 제안했다.

나는 그들의 성관계를 일주일에 한번 또는 한달에 세번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왜냐하면 신혼의 한창 때가 다르고, 사람들도 각기 다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규율은 세울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그러나 만약에 이 교도가 그런 표를 했다면, 더 적으리라 생각하는데 기독교인들은, 특히 나이가 들어서는, 위의 횡수 보다 더 적을 것이다.

Rogers는 마침내 성교의 ‘시기를 엄수한다는’ 결정에 대한 기독교인의 자유와 불가능을 역설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영향으로 Rogers는 일주일에 두번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 Luther보다는 오히려 그리스 청교도와 카톨릭교도 쪽으로 기울어졌다.⁴¹⁾

³⁷⁾Ibid.

³⁸⁾Nicholas Byfield, *A Commentary on the Three 1st Chapters of the 1st Epistle General of St. Peter*(London: MFlesher and R. Young, 1637) 600; Rogers, *Honour*, 178, cf. 164, 177.

³⁹⁾Robert Cleaver, *A Godly Forme of Household Government*(London: T. Creede, 1603) 157; Gouge, *Duties*, 224, inter alia.

⁴⁰⁾Whately, *Directions*, 265.

⁴¹⁾Rogers, *Honour*, 177-80. Luther, for contrast, suggested biweekly relations as a guide; see Steven Ozment, *When Fathers Ruled: Family Life in Reformation Europe*(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119.

세째, 신앙심이 깊은 성도들 중에 결혼한 부부는 성행위 전에 기도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무의식적인 성행위를 제한했다. Bolton은 결혼한 부부는 “이틀 내지 사흘정도는 열심을 내어 기도해야 하며, 선한 자녀를 얻고, 서로에게 결혼 임무를 다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충고했다.⁴²⁾ Whately는 남편과 아내는 성교 전에 그들의 행위는 합법적임을 생각하며, 그보다도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식탁에 앉아서, 여물통 앞에 있는 말처럼 먼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도 없이 음식을 잔뜩 배불려 먹는 것은 야만적이듯이, 결혼한 부부가 그들 결합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느끼고 마땅히 찬양할 것을 잊어버리고, 무시하는 것은 굉장히 방바하다.⁴³⁾

Rogers, Cleaver와 Hieron은 결혼한 부부들은 성행위 이전에 기도하며, 그들의 행위에 대한 축복하심, 목적 그리고 합법성등을 생각할 것을 말했다.⁴⁴⁾

몇몇 역사가들은 성교에 대한 청교도의 관심 이면에 있는 주요 동기는 사생이나 경솔한 결혼등으로 인한 사회질서의 문란과 간음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가 청교도의 입장을 말한다면, 그들의 주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죄를 지을 기회 또는 그 결과로 인한 두려움을 없이하고 깨끗이 생활하는 사람들을 믿지 못했다.⁴⁵⁾

Bolton은 부부의 동침(the marriage bed)이 부절제하면서도,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는 자유한 어떤 사람들을 주시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순결한 눈이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를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회개 없다면 그것은 전염병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Bolton은 이 “전염병(plague)”은 성행위를 절제하지 못하여 낳지 말아야 할 아이를 계속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육욕적인 사랑과 지나친 열정으로 부부의 동침을 남용하는 남편과 아내들에게 “신의 정의가 유산, 불임, 사생아등으로 당연히 응징하실 것이다”라고 경고하였다.⁴⁶⁾ Hieron은 “하나님은 그들의 자손에게서도 성병, 억제하지 못하고 무질서한 욕정등으

⁴²⁾Bolton, *Walking*, 384.

⁴³⁾Whately, *Directions*, 262-63.

⁴⁴⁾Cleaver, *Godly Form*, 158; Rogers, *Honour*, 179; Samuel Hieron, *The Sermons of Master Samuel Hieron*(London: J. Legatt, 1624) 410.

⁴⁵⁾Rogers, *Honour*, 173.

⁴⁶⁾Bolton, *Walking*, 243-44.

로 벌하실 것”을 주장했다.⁴⁷⁾ 이런 점에서 Cleaver는 가장 명백하고, 맹렬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알아야 한다. 끌어 오르는 욕정으로 흥분된 남자가 함께 만났을 때는 그들의 색욕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 외에 다른 관심은 없다. 기도로 부부의 동침을 신성화 할 양심조차 없으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관심이 없다…… 곧 괴물이나 바보 또는 가장 사악하고, 타락한 사람들 중의 하나를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⁴⁸⁾

Whately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없이, 욕정으로 관계를 가진 부모들을 벌하시기 위해 괴물같은, 사악하고, 또는 병들고 저주받은 자식을 주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그는 “실제로 불순한 성교를 통해 임신된 아이는 여러가지 질병을 물려 받을 수 밖에 없다”⁴⁹⁾ 라고 말했다.

청교도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생산 행위에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어야 함을 위 사람들의 경고로서 자극시켰다. Richard Greenham은 아이는 자연과 초자연을 능가하는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주신 씨라는 말로 표현했다.⁵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들의 교훈은 예정하지 못한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다. 장애아가 태어나거나 아기가 태어나 유아기에 죽게 됨으로 죄의식에 사로 잡히고, 도리어 비난거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청교도들은 성행위 그 자체를 공격한 것은 결코 아니며 오히려 그것의 본질적 가치를 찬양한 것이다. 더우기, 그들은 성행위에 제한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육체적 사랑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다. 성에 대한 청교도의 태도는 혼외 정사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정확하다.

5. 혼외 정사에 대한 비난(非難)

(The Condemnation of Extramarital Relations)

혼외 정사라는 성적인 죄에 대한 청교도의 고발은 전례없는 적의를 보여 주었다. Becon은 혐오스럽고, 모욕거리인 죄라고 불릴 매춘에 대한 비난의 기원이 되었는데, 이 행위는 당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다.⁵¹⁾ Rogers는 “결혼을 더럽힌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가 임할 것을 깨달으라”고 하면서 [부부의 정조(Matrimonial Honour)]의 부록 60페이지를 끝맺고 있다.⁵²⁾ Rogers는 “간통자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한다……지옥의 형벌은 멈추지도 않는다!……지옥의 불은 그의 콧구멍에 진짜 향기로운 냄새를 풍길 것이다.”⁵³⁾ Byfield는 매춘의 죄는 “남성의 힘을 소모시키고, 남성의 골수(substance)를 낭비시키는 도둑질보다도 더 나쁜 것이며 이성없는 남자로 만들며, 영혼을 파고 시켜 지옥으로 보낸다”라고 말했다.⁵⁴⁾

Gouge는 성경에서 것처럼 악하고 가증스러운 죄를 찾아볼 수 없었다. 간통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간통자의 배우자, 아이들, 친구들, 그 도시, 그 국가, 그 교회 그리고 간통한 자신들에 대한 공격이다. 아마도 최악으로는 결혼을 무산시키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의 애정을 불화하게 하고 좀처럼 회복시키지 못한다.” 하나님은 간통자들을 격멸하시고 저주하신다. “밀통하는 자와, 간통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제 무엇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으로 잡혀 들어갈 것인지 보자.”⁵⁵⁾ 그런 완강한 말들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시킨다. 왜 청교도들은 성적인 죄를 그렇게도 증오했을까? 왜 그것을 다른 죄보다도 더 나쁜 것으로 생각했을까? 우리가 성과 쾌락에 대한 청교도의 태도를 평가할 때에 드러나는 그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6. 분석(Analysis)

청교도들은 사고와 습성이 성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기독교의 결혼과 성욕에 대한 사고를 개혁하려고 시도했다. 청교도들과 그들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들은 청교도가 승리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청교도가 성욕이나 쾌락에 대한 그리이스 정교나 기독교의 엄한 사상을 유지하면서 변형했다고 믿는다.

앞의 설명은 청교도의 비방자도 방어자도 어느 누구도 결혼에서의 성욕과 쾌락에 대한 청교도의 신학을 정확히 묘사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성생활을 부부의 행복의 왕관으로 판단할 수도, 결혼의 성에 대한 태도를 충분히 표현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믿었던 관능성이 악이라고 말하

⁴⁷⁾Hieron, *Sermons*, 410.

⁴⁸⁾Cleaver, *Godly Form*, 301.

⁴⁹⁾Whately, *Directions*, 263, 266.

⁵⁰⁾Richard Greenham, *The Works of Richard Greenham*(London: H.H., 1605) 277.

⁵¹⁾Becon, *Catechism*, 643-50. The text is from a sermon, “An Homily Against Whoredom.”

⁵²⁾Rogers, *Honour*, 327 ff.

⁵³⁾Ibid., 344, 351, 348 respectively.

⁵⁴⁾Nicholas Byfield, *An Exposition upon the Epistle to the Colossians*(London: James Nisbet and Co., 1868) 359-60(first published in London, 1615).

⁵⁵⁾Gouge, *Duties*, 219-21.

는 것은 옳지 않다. 성과 쾌락에 대한 청교도의 관점이 모순됨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있다. 어떤 사람은 예상된 주제를 확증할 만한 증거를 붙잡아서 청교도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학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반증을 무시했다.⁵⁶⁾

정직과 순결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청교도의 견해를 묘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청교도의 사고는 내면의 긴장과 모순으로 고투하고 있었으므로 보편화 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경건한 설교자들은 서로 충돌하게 될 여러 사상들을 받아들였다. 첫째, 청교도는 하나님이 결혼과 성을 창조하셨음을 인정하였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므로 타락이전에도 순결한 것이었다. 둘째,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경우에 따라 합의하여 분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로의 욕체를 나눌 책임을 지우셨다. 그러므로 성행위는 정상적인 부부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셋째, 성교는 후손을 생산하고 간음을 방지하며, 남편과 아내 사이의 애정과 연합을 증진시키는 유익을 준다. 그러나, 네째로 청교도들은 '욕정은 생식적인 행위를 더럽히는 수치스러운 것이다'라는 그리스 정교나 로마 카톨릭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었다. 성적인 욕망의 힘, 자발성, 의지를 무너뜨릴 가능성 그리고 쾌락, 너무 격렬해서 의식을 압도하는 것 등을 두려워했다. 인간의 성욕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분리된 것임을 말한다는 것을 신학자들이 깨닫게 했다. 그들은 성교 동안에 하나님을 명상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인류의 하나님에 대한 배반과 내면의 무질서는 인간의 성욕에 집중되었다.

청교도들은 결코 그리스 정교나 로마 카톨릭의 사상을 확실히 간파할 수 없었다. 청교도의 설교집들에서는 잠재적으로 그들의 사상을 채택하였음을 보여준다. 정직하고 숙련된 연구가라도 청교도의 관점에 대해 공식화 하기란 쉽지가 않았다.

청교도를 비평하기 위해서 두가지의 비판적인 질문이 제기되어야 한다. 설교자 자신들의 편에서 평가하고 그들의 의사와 표준에 따라 판단하기 위해서 독자들은 물어야 한다. 성경에서 그들이 관찰한 성욕에 대한 교훈은 어떠한가? 만약, 비성경적인 사상을 진전시켰다면, 왜 그렇게 했을까? 이

⁵⁶For example, both Frye and Ryken, on the basis of brief remarks open to different interpretations, claim Whately, who probably had the most negative attitude toward sex, for their case that the Puritans were liberators. Both also quote a statement from Gataker permitting playful and pleasurable contact between couples, but neither cites an equally powerful and vivid(hence quotable) admonition against lust and license in marriage. I believe Frye, Stone, and Koehler fell into the first error mentioned. Ryken surely committed the second.

안건을 선택함에 있어 현존하는 다른 유효한 비평적인 접근을 부정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학자는 청교도의 사상에 끼친 사회의 영향력을 조사하고 발견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은 그들 마음 속에 가장 깊히 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엄밀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언급하면서, 결혼할 연령에 관련된 사회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시하고 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예를들면, 그들은 성적인 욕구가 요구될 때 부모는 자녀를 위해 결혼 준비를 했으며 가난과 인구 과잉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무시했다고 말했다.⁵⁷⁾

그렇다면 청교도는 어떻게 성경에 충실하여 규율을 세웠을까? 첫째, 독실한 신자는 혼외정사의 성적인 죄에 대해서 지나친 반응을 보였다. 청교도와는 달리, 성경 작가들은 특히 영혼을 헐박하는 성적인 죄는 선언하지 않았다. 확실히 말하면 습관적인 성 범죄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며 우상 숭배자, 도적, 술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들도 역시 그러했다(고전6: 9-11, 롬1: 26-32).

둘째, 결혼에 있어서 성적인 죄에 대한 청교도의 경고는 근본적으로 비성경적이다. 성경은 사랑과 자기희생과 같은 일반적인 원칙을 제외하고는, 결혼에 있어서 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단지 성경은 성교를 계속할 것을 요구한다(고전7: 1-5). 부부간의 성교의 회수와 정도에 대한 설교자 충고는 아마도 두 근원을 가진다. 성과 열정에 대한 불안감의 잔재는 카톨릭 사상(Catholicism)에서, 지성적인 구라파의 세계에서는 절제, 금욕, 극기 등을 전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절제(Moderation)는 신학자나 도덕가들이 지상의 모든 만물 또는 욕체적인 것, 말하자면 성, 음식, 음료, 수면, 오락, 의식, 의복 그리고 가족의 애정에도 적용되는 신조로서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원칙이었다. 비청교도 도덕가 가운데 John Bodenham은 절제를 "모든 미덕중에서 가장 유익한 것이다"라고 했다.⁵⁸⁾ Richard Brathwaite는 "절제나 극기 만큼 인간을 존경 받게하며, 이름답게하는 미덕은 없다"⁵⁹⁾라고 했다. 영국 의사들 또한 절제의 미덕을 극찬했다.⁶⁰⁾ 청교도들 역시 광범위하게 절제의 원칙을 사용했다. 예를들면, Robinson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고기, 술, 의복, 수면, 오락, 신용, 휴식등을 절제하여 먹고 향유하지 못하면, 그는 사

⁵⁷For God's judgment of secret acts, see Bolton above(note 46). For marriage at the time of sexual need, see Gouge, *Duties*, 564-65.

⁵⁸John Bodenham, *Politeuphuia or Wits Commonwealth*(London: J. Flesher, 1647) 74.

⁵⁹Richard Brathwaite, *English Gentleman*(London: J. Haviland, 1630) 305-6.

⁶⁰See Stone, *Family*, 512.

람들과 친교도 정상적으로 못하며, 하나님 앞에서도 경건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했다.⁶¹⁾ Perkins는 종종 그의 궤변에 절제의 원칙을 사용했는데, 절제를 결혼중의 성교를 올바르게 하는 첫 원칙이라 불렀다. “절제는 고대 교회의 심판이었다. 무절제한 욕망은 남편과 아내 사이라도 간음이다”.⁶²⁾ Bolton은 50페이지에 걸쳐 절제에 관하여 논하면서 음식, 술, 의복, 오락, 그리고 수면등에 대한 과욕을 경고했다. “기독교인들은 부정한 죄로 인한 비난보다……법적인 면에서 무절제하고……교활한 환심에 의해 영적으로 나태해질 위험이 크다”.⁶³⁾

그러므로 신실한 성도들은 절제를 극찬하면서 유력한 사상들을 따랐다. 절제에 대한 사상은 회랍사상이 Aristotle를 통해서 T.Aquinas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quinas를 통해서 절제는 구라과의 정신적 공급원, 도덕적 이념의 일부가 되었다. 절제의 옹호자들은 절제는 극단에서 도피하고 자제하게 한다고 믿었다. 그들의 토론에서 절제에 대한 여러가지의 격찬을 볼 수 있다. (1) 의복과 수면 뿐만아니라 음식, 술과 성 등을 포함한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쾌락에 대해서도 자제하며, (2) 일, 놀이 또는 사랑받는 사람 어느 것이든지 극도의 감정, 열정, 헌신을 보여주지 않기위해서 정숙하고 위엄있는 행동을 하며, (3) 열정은 일반적으로 피한다.

절제에 대한 청교도적 개념을 평가하기 위한 여러가지 질문이 야기될 수 있다. ‘절제’란 성경적인 개념인가? 만약 그렇다면, 성경에서 절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약 그것이 성경적인 개념이라면, 목숨 또는 보다 작은 일에도 보편적인 원칙이 되고, 보다 중요한 일에도 적합해야 되지 않는가? 더우기 어떻게 절제의 개념을 결혼의 성욕에 적용할 수 있을까?

가장 근대화된 번역도 ‘절제 (moderation)’란 단어에 어려움을 느낀다. 흠정역에서는 단 한번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개념은 성경적이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며, 의과 성숙의 표이며, 잠언과 바울서신, 베드로서신에 종종 나타난다. 반면 사악하고 어리석은 자는 육체적인 쾌락에 대한 열정, 분노, 혀를 다스리는데 실패한다. 청교도는 ‘압살롬의 시험에 관대한 다윗의 헌신’처럼 가족간의 사랑도 절제할 수 있음을 주시하였다. 따라서 절제의 개념에 대한 첫번째의 의미는 성경적이다.

그러나 청교도의 절제에 대한 두번째, 세번째 의미는 성경에서 극도의 감정, 열정, 헌신 등의 예를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의문이 제기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사무엘하 6장에서 미갈은 다윗이 주님앞에서 기쁨으로 열렬히

춤추고 있는 것을 격멸했다. 그러나 사무엘서의 저자이신 성령님은 다윗의 “무절제한(immoderate)” 축하를 인정하셨다(삼하6:23). 예수님과 바울은 “무절제한” 관대함을 칭찬하셨다(눅21:4, 고후8장).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남자가 모압 여자와 음행하고 있을 때, 창으로 그들을 죽인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의 열정과 열의를 칭찬한다(민25:1-13).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정은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서도 나타난다(시69:9, 요2:17).

성경의 저자들도 신자들이 때때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절제한 행동이 요청될 때 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열심을 낼 것을 주장한다(눅12:31-34; 14:25-27, 롬12:11). 마침내 잠언 5:18-19과 아가서에는 부부간의 “무절제”를 인정하고 심지어 칭찬하기에 이르렀고, 청교도는 종종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아가서와 다른 유사한 책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극도의 감정, 열정, 헌신에 대해서 그렇게 악한 입장을 가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달리말해서 절제가 절대적 가치는 아니다. 열정에 대한 무절제는 그것이 표현되는 상황과 방법 그리고 열정을 가지는 대상에 따라 선, 악 그리고 무절제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절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청교도의 사상은 부부간의 욕정(marital lusts)이 기형아 또는 보기에도 흉칙한 아이를 낳게 된다고 하는 일설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늘날에는 그 생각이 모순되고 어리석게 들리지만 그 당시는 “과학적으로”들리고, 신학적으로도 인정되었다. 만약 심사숙고한 남편이 임신이 되는 동안에 욕정이 그 영혼을 거의 불구로 만들었다면, 기형은 그 임신된 태아의 육체와 영혼에도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설교자들은 선한 의도를 가졌는데 소위 그들이 나쁘다고 비평하는 것은 당치 않는 일이다. 이 문제들 즉 행위에 대한 보편적 원칙으로서, 청교도의 절제에 대한 주장은 비성경적이며 계속되는 열정에 대한 협박이다.

이 결론은 우리로 하여금 왜 경건한 신자가 절제나 열정의 억제를 주장하였는가를 묻게 한다. Ronald Frye는 무절제한 사람이 결혼의 안정성 유지를 방해하는 폭력을 가했다고 공격하는 그들과 해왔다. 청교도들은 무절제한 사람이 질투, 포만 또는 자기 중심의 불만 속으로 타락할 수 있음을 두려워했다. Frye는 청교도가 욕정이 결혼을 파괴시키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파괴적인 것으로 고했음을 보여 주었다.⁶⁴⁾ 그러나 Frye의 대답은 불완전했다. 그가 답변을 위해 끌어 낸 가장 유력한 인용은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에 들어가기 위한 근거로서 욕정을 비난한 것이다. 청교도와 함께 성경은 육체적 또는 성적인 매력이 결혼의 근거가 되지 않음을 가르친다. 그러나

⁶¹⁾Robinson, *Works* 3.128.

⁶²⁾Perkins, *Workes* 3.689.

⁶³⁾Bolton, *Walking*, 154-206.

⁶⁴⁾Frye, “Love,” 156-58.

근본적인 이슈는 결혼을 위한 기초로서 열정이 아니라 결혼 안에서의 열정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문은 교제, 협력, 자손을 위한 결혼이라면 그들은 “무절제”하고 열정적이고 감각적인 사랑을 즐길 수 있을까?

Frye는 결혼에 이르러 청교도는 육체적 사랑이 아무리 격렬하더라도 그 자체로서는 선하고 순수한 것으로 보는 반면 욕망은 타락한 우상숭배, 불안정한 애정 그리고 무절제로 정의했다.⁶⁵⁾ 그러나 이 문제는 “열렬한 사랑”은 선하며, “무절제한 애정”은 나쁘다는 정의로 해결될 수는 없다. 열렬한 사랑은 열렬한 성적인 사랑을 포함하지 않는가? 성적인 열정은 항상 무절제한가? 달리 말하면 청교도는 결혼의 근거로서 욕망을 방호(防護)하기 위해 성경적인 근거를 채택하는 반면 결혼안에서 욕망이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결코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했다. 그들은 욕정의 두 가지 감각을 구별하지 못했다. 즉, (1) 대상에 의존하는 불명확한 것으로서 강한 욕망(strong desire) (2) 특히 어떤 금지된 것에 대한 무절제한 열정(inordinate passion)이다. 확실히 말해, 인간은 상호 배우자를 갈망할 수 있다. 어떤 남자가 그의 아내를 육체적 쾌락 또는 만족의 대상으로 취급한다거나, 여자가 그의 남편을 단지 자신의 소유물로 통제한다면 그것은 욕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강한 성적 욕망이 다 죄스러운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결혼이 건전한 열정을 위한 장소인가? 청교도들은 그 중요한 질문에는 결코 답하지 못하면서, 구약의 아가서와 잠언서 5:18:19을 다룰 때 그들은 결혼에 있어서의 열정은 시인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아가서(the Song of Solomon)에 나타난 열정을 애가(a love song)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유(an allegory of Christ and the church)로 받아들였다. 더우기, 그들은 잠언 5장의 명백한 의미를 깎아 내리면서 12가지의 주해를 덧붙혔다. 결국 딤편4:3-5을 인용하여, 성교는 기도로 기록하여진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성교가 항상 기도로 기록해 짐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들이 틀림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청교도의 열정과 쾌락(passion and pleasure)에 대한 커다란 불만은 그리이스 정교와 카톨릭의 이원론(Greek and Catholic dualism)에서 나온 것이다. 신실한 형제들(the godly brethren)은 여러 세대를 걸쳐 내려온 전통을 완전히 깨뜨리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우리는 청교도의 결점을 올바른 견해로 표현해야 한다. 비록 논리적 설명에는 실패했지만, 부부성교(marital relations)의 필수적인 순결을 지지하고, 재확립 했다. 불완전하긴 하나 그들의 견해는 Jerome으로 부터 T. Aquinas, Vives에 이르는 카톨릭의 견해보다 더 건전하며 성경적이다.

⁶⁵⁾Ibid., 159.

예를들면, 그들이 결혼의 성적인 표현에 대해 갖가지 제한을 강요했지만, 로마교회는 월경, 임신, 수유기 그리고 금식기간이나 특별한 축제일, 부활절, 성령강림절(오순절), 성탄절 前 40일 동안 그리고 영성체 前 3일에서 7일 동안은 성교를 금했다. 더우기 케번가들은 “목요일은 그리스도의 끌려가심을 기념하여, 금요일은 죽으심을 기념하여, 토요일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경의를 표하여, 주일은 부활하심에 경의를 표하여 그리고 월요일은 고인을 기념하기 위하여 금욕하기를 권했다.”⁶⁶⁾

이에 비한다면 청교도는 성의 현실주의자요 해방자였다. 그들 역시 금식기간에는 성교를 금했지만, 특별한 목적을 가진 금식이었지 매일 금식하는 것은 아니었다. 또 다른 의문이 야기되는 금지(prohibition)는 월경기간의 성교인데 이는 성경적인 근거를 댈 수는 있다. 그러나 레위기 속에 나타난적인 율법의 개념을 적용한다는데 대해서는 청교도도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청교도는 카톨릭보다는 더 많은 자유를 허락하였다.

더우기, 청교도는 다른 개혁주의 영국인들보다는 성경에 근접해 있었다. 후기의 많은 작가들에게서 불안정함이 드러나는데, 즉 성경적 관점과 카톨릭적 관점 사이에서 청교도의 동요가 매우 탁월해진다. 예를들면, 순결과 처녀성을 칭찬했던 Richard Brathwaite는 [영국 귀부인(English Gentlewoman)]에서 혼외정사의 사건을 기록할 여지를 남겨두었다.⁶⁷⁾ 그들은 기묘한 말과 흥을 돋우는 이야기로 부부간의 진지한 충고를 혼합시킨 반면 다른 사람은 지루한 시와 여자를 싫어하는 남자의 헛소리들로 독자들을 위로했다.⁶⁸⁾

성적 범죄에 대해 기록한 저서전들, 사생아에 대한 인구통계학의 연구, 혼전임신등은 성경적 견해가 영국 대변인들에게 필요함을 입증한다. 사통(fornication)이나 간음(adultery)은 보통이었고, 유기(dersertion), 자의적 이혼 그리고 이중 결혼 역시 보기 드문것이 아니었다.⁶⁹⁾

대륙의 개종자들(Protestants)과 비교해 볼 때, 청교도는 나쁘게 살아가고 있는것은 아니다. Luther나 루터파는 사통의 구체책으로 부부간의 성교

⁶⁶⁾Bailey, *Sexual Relation*, 133-34.

⁶⁷⁾Richard Brathwaite, *The English Gentlewoman*(London: B. Alsop and T. Fawcet, 1631) 1-26, 138, 147.

⁶⁸⁾See, respectively, Richard Brathwaite, *Ar't Asleepe Husband?*(London: R. Bishop, 1640); Thomas Overbury, *His Wife with Additions of New Characters and Many Other Witty Conceits*(London: I.I., 1627); and Thomas Swetnam, *The Arraignment of Lewde, Idle, Forward Unconstant Women: or the Vanitie of Them, Choose You Whether*(London: T. Norris, 1645):

⁶⁹⁾Stone, *Family*, 546-622.

는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Calvin은 성교가 가져다 주는 쾌락에 대한 반감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나 그는 욕망에 이르게 하는 지나친 열정은 부부간의 성교에서도 죄가 된다는 보편적인 신념은 가지고 있었다.⁷⁰⁾

Luther나 Calvin은 쾌락 또는 부부간의 애정을 증진시키는 것이 성교의 목적이라고 강조하지는 않았다. 청교도들은 성적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필요를 요구하고, 동거를 역설하며, 쾌락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할 방법들을 준비하고 있었다. 곧, Milton은 부부간의 성교의 본질적인 잇점을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교도의 비난자도 옹호자도 어느 누구도 완전히 옳지는 않음을 알게 되었다. 영국의 경우에 순수한 성경적 교훈을 되찾고자 노력했지만 문화적, 지적인 결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던 청교도의 성에 대한 사고는 해석하기가 난해하다. 반면, 우리는 청교도의 사고에서 쉽사리 결합들을 찾아낼지도 모르는데 거기에는 관대한 판단을 할 여지가 있다. 청교도 설교자들은 중세의 최악의 오류를 공격했으며, 종교개혁과 영국의 후기 종교개혁에서 성욕에 관한 성경적 사고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결론적으로 청교도들은 결혼과 성욕에 대한 기독교 사고에 급진적인 개혁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 달성은 실패했으며, 만일 증대된 것이 있다면 기독교 공동체내에서 성경적인 교훈을 되찾기위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다고 하겠다.

⁷⁰Calvin, *Institutes* 2.8.44; 3.10.2.

번역

영국퓨리탄 신학에 있어서 보증(확신) 이론*

(The Logic of Assurance in English Puritan Theology)

저자 : R.M. Hawkes**

번역 : 황 동 현***

영국의 청교도를 정의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언약신학, 예정, 개혁교회의식을 강조하는 신학적 운동인가?

그렇지않으면, 백성에 대한 주권의 확립, 왕정의회정치, 아니면 독단적 특권을 지닌 법정에 있어서의 자연법의 원리, 또는 하나님 앞에서의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주장하는 정치적인 문제가 그 핵심인가?

몇몇 현대연구들은 세번째의 가능성을 지적했는데 그것은 곧 퓨리터니즘 중의 필수요소인 경건, 회심의 강조, 근원적이고, 진심에서 우러난 종교심의 강조이다.

참으로 이 세 영역에 있어서의 퓨리탄의 업적을 탐구하는 끝없이 지속된 작업은 퓨리탄시대가 사라진 이후의 약300년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미친 만연한 영향과 거대한 독창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영국의 퓨리탄인들은 그같은 다양한 노력을 해왔고, 그 학문연구는 그들에게 단편적인 모습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하나의 작업도 퓨리터니즘의 미로를 다 통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을 퓨리탄이었고, 그렇다면 그것은 정치운동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만약 존 오웬(John Owen)은 퓨리탄이었고, 그렇다면 그것은 신학적 운동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만약 존 번연(John Bunyan)이 퓨리탄이었고, 그렇다면 그것은 경건적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52th, 1990. 247~261에서완역한 것임.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교수

***고려신학 대학원 3년